자산 10조 넘는 ICT기업도 인터넷銀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법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은 현행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ICT 기업의 정의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 ICT 재벌기업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전업기업은 앞으로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긴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한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규정도 담았다.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지만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로 한 것이다.

예컨대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이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겼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영태 기자

국민은행 총파업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8일 어느 KB국민은행 지점 영업장에 정상영업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전국 1058개 모든 영업점을 열었으나 이중 거점점포로 지정된 411개점(39%)에서만 정상적인 창구업무가 가능한 상황이다. 나머지 647개점(61%)에서는 직원수 부족 등으로 단순 입출금 업무 등 일부 업무만 처리만 가능한 상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하세요"… 3년 600만원 납입하면 목돈 3000만원 마련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 해야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이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부담해 3년 후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구체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으로 11만명 대비 98.6%를 기록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아울러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창업·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7억→15억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모펀드 운용사 자기자본 요건 20억→10억 완화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가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돼 연간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면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된다.

투자확정 전에 투자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기간도 도입된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된다.

시행령은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는 6개에서 2개로 간소화된다.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된다.

아울러 시행령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은행, 중소기업 설 특별운전자금 3000억원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도내, 당행 영업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신규 1,500억원, 만기연장 1,500억원으로 총 3,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상업어음할인,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업체당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취급되는 신규 운전자금,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이다. 특히, 대출 금리는 최고 1.79%를 감면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한, 설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지속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유동성 부족, 매출증가에 따른 부족자금 결제, 종업원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대여금고 서비스 '큰 호응'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고객들의 귀중품을 보관해 주는, 대여금고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예금증서, 채권, 귀금속 등 고객들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자산 또는 신용이 확실한 농협은행 거래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금고 이용은 영업점으로 전화문의 또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전북영업부(063-237-5090), 전주에코시티지점(063-213-8265)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